

제 1 교시

국어 영역

THE PREMIUM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인 독서 연구는 주로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지적 작용인 독서의 인지적 영역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독서가 인지적 요소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점차 독서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독서가 개인의 인지 과정을 넘은, ‘사회적 행위’라고 보는 학자들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집단에 속한 독자들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나 반응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예를 들어 유교적 관념이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작품을 다른 문화권의 현대 독자가 읽는다면, 사전의 전개 과정이나 주제 의식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텍스트라 하더라도 독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달라진다. 개별 독자는 특정한 시대, 국가, 사회, 계층과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집단 안에서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며 성장하고 생활한다. 이러한 독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독자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일종의 렌즈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개별 독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한 사회·문화적 영향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독서를 통해 텍스트를 해석한 결과물은 독자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획득해 온 사회 학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비판 이론은 사회학에 기반을 두고 독서의 사회적 성격을 설명한다. 비판 이론에서는 책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언어 사용 및 해석에 인간 간의 관계, 특히 권력과 이념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비판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독자는 자신이 접하는 텍스트 안에 특정한 이념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비판 이론가들은 독자 자신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이나, 텍스트에 대한 모범적인 해석이 사실은 교육에서 학습되고 강요된 이념의 실행은 아닌지를 독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1.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 ② 독자는 집단 안에서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며 성장함으로써 가치관을 형성한다.
- ③ 같은 사회·문화적 집단에 속한 독자들은 특정 텍스트에 대해 유사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 ④ 독서 행위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독서 연구와 다른 이론에 기반하여 독서의 성격을 설명한다.
- ⑤ 비판 이론에 따르면 학습된 이념으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비판적 인식을 갖춰야 한다.

2. 밑글을 읽고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자의 인지 작용이 변화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개별 독자의 인식이 집단이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확대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③ 독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텍스트 내의 이념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④ 사회 학습의 결과로 형성된 독자의 가치관이 텍스트 해석의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⑤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해석이 독자가 속한 집단의 바람직한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군.

3.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청소년 독자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다. ㉢ A라는 책이 주변 또래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청소년 독자가 그 책을 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 청소년 독자는 그 책에 대해 처음부터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 독서 과정은 외적 영향이 없을 때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책에 대해 또래들과 다른 생각을 갖더라도, 이를 표현한다는 부담 때문에 ㉥ 자신의 생각과 다른 독서 반응을 공유할 수 있다. 이는 ㉢ 독자의 책 선택과 독서 과정, 독서 후의 반응에 또래 집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① ㉢: 독자가 읽을 책을 선택하는 과정이 사회적 행위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 ② ㉣: 독자가 책을 대하는 태도에 집단의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낸다.
- ③ ㉤: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한 이념에 대해 독자가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또래 집단의 가치관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⑤ ㉥: 독자의 언어 사용 및 언어에 대한 해석에 인간 간의 관계가 개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행은 현금 보유자의 예금을 토대로 대출하여 신용을 중개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은행이 아닌 금융 회사가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한다. 대체로 그림자 금융 회사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한 대출 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데, 은행의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므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 상품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있다. 유동성은 자산을 손실 없이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하는데, 자산 유동화 증권은 유동성이 낮은 ㉡기초 자산을 유동성이 높게 바꿔 주는 금융 상품이다. 본래 자산 유동화 증권은 미국에서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의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주로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을 담당했지만, 이 중 연방주택공사가 보증하는 대출 채권은 정부가 후원하는 모기지 회사가 매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신용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했던 모기지 회사는 매입할 대출 채권이 증가하자 이들을 적절히 묶어 증권으로 만든 후에 이자를 주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모기지 회사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은행이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금융 회사인 콘돋을 설립하여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의 대출 채권은 만기가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지만 **[자산 유동화 파정]**을 거치면 현금 흐름을 확보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콘돋을 설립하는 것은 기초 자산의 최초 보유자인 은행이 그 소유권을 콘돋에 이전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콘돋이 매입한 기초 자산은 어떤 금액, 이자율, 만기 등이 각각 달라 그대로 판매하기에는 어려우며 그림자 금융에서 다루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와 같은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조화하여 신용도를 보장하고 판매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매입한 하나의 채권이 부도가 나면 투자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지만 여러 개의 채권을 묶어 증권화하면 위험을 낮춰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집합된 기초 자산은 각각 다른 위험도와 수익률을 가진 증권으로 구조화되며, 투자자들이 매입하기 쉽도록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뉘어 판매된다. 이때 증권은 위험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신용 위 등급에서 후순위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은 높으며, 수익률은 이자율이 낮거나 만기가 짧을수록 낮아진다.

이처럼 그림자 금융은 새로운 투자처를 창출하고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아 유동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상환을 동시에 요구하면 유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다.

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자 금융은 대출 채권을 증권화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 ② 콘돋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은 시장 변동성과 독립적이다.
- ③ 자산 유동화 증권의 만기가 길수록 유동성과 위험도는 낮아진다.
- ④ 그림자 금융과 달리 은행은 신용 중개 기능을 하므로 공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
- ⑤ 구조화된 증권은 하나의 채권에서 발생한 위험을 다른 채권으로 전이시켜 부도 위험을 높인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 투자한 이는 그림자 금융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는다.
- ② ㉡이 부실해지면 그에 기반한 ㉠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 ③ ㉠은 ㉡과 달리 자산을 즉시 현금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이 주택 담보 대출로 발생할 경우, 이는 은행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을 판매하는 은행은 ㉠을 판매하는 금융 회사와 달리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를 받는다.

6. **[자산 유동화 파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행이 콘돋에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현금을 확보한다.
- ② 만기가 각각 다른 대출 채권이 묶여 하나의 증권으로 탈바꿈하는 구조화가 일어난다.
- ③ 여러 개의 대출 채권을 묶는 과정에서 채권의 부도 위험은 낮아지고 신용도는 높아진다.
- ④ 대출 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향상된다.
- ⑤ 모기지 회사가 대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지급을 보증한 연방 주택공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7. 뒷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미국의 은행 X는 금융 회사 Y를 설립하여 대출 채권 200개를 총 50억 달러를 받고 Y에 양도했다. Y는 양도받은 대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시니어 등급, 메자닌 등급, 에퀴티 등급으로 차등화해 지급하는 증권을 발행했다. 각 등급의 증권은 만기가 같지만 위험 부담 순서가 다르다. 손실은 에퀴티 증권부터 흡수되는데 기초 자산의 10%까지 손실이 발생하면 에퀴티 증권은 원금이 전부 상실된다. 그다음 메자닌 증권에서 손실이 시작되고 손실률이 40%가 되면 메자닌 증권도 원금이 전부 손실된다. 시니어 등급은 손실률이 40%가 될 때까지 안전하므로 기초 자산 묶음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트리플 A’로 평가받는다. 한편 X는 50억 달러에 대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확보해야 하는 자기 자본의 양을 낮출 수 있었다.

- ① 시니어 등급의 증권은 메자닌 등급의 증권보다 이자율과 수익률이 모두 낮겠군.
- ② 시니어 등급의 증권은 신용도가 트리플 A인 기초 자산들 위주로 묶여 증권화했을 가능성이 높겠군.
- ③ X는 50억 달러의 대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을 낮출 수 있겠군.
- ④ X가 파산하더라도 Y는 별도의 회사로서 공적 지원을 받으므로 Y의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영향을 받지 않겠군.
- ⑤ Y는 등급별모 이자를 차등 지급하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손실 시 시니어 등급의 투자자들부터 동시 상환 요구가 시작되겠군.

[1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진행되는 여러 단계를 세포 주기로 한다.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을 거듭하여 성장하지만 세포가 정상적인 분열 주기에서 벗어나면 종양이 생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종양은 세포 내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 생성된다. 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세포 분열 촉진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종양이 유발되므로 이 유전자를 ㉡종양 유전자라고 한다. 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Ras 단백질은 G 단백질과 결합하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세포 외부에서 세포 분열의 신호가 전달되면 G 단백질에 인산화가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Ras 단백질은 G 단백질과 분리되어 활성화 상태가 된다. 활성화된 Ras 단백질은 세포핵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세포 분열을 유도한다. 하지만 Ras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Ras 단백질이 항상 활성화 상태가 되어 종양이 생성된다.

또한 어떤 단백질은 종양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종양이 생성된다. 가령 세포 분열 촉진 유전자는 종양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지닌 Rb 단백질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Rb 단백질이 전사 인자인 E2F와 결합되어 있으면 E2F의 활성화를 막아 세포 분열 촉진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된다. 하지만 조절 단백질인 CDK 효소에 의해 Rb 단백질이 인산화되면 E2F가 분리되는데, 그 결과 E2F가 활성화되어 세포 분열 촉진 유전자가 발현된다. 따라서 세포가 비정상적인 분열을 할 경우 Rb 단백질이 세포 분열 촉진 유전자의 발현을 막아야 한다. Rb 단백질을 형성하는 Rb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불리는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통제 기능이 마비되어 세포 분열 촉진 유전자가 무한정 발현된다. 한편, 또 다른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 유전자는 CDK 효소의 비정상적 기능을 유발하는 p21 유전자를 억제하여 세포의 과도한 분열을 막는다.

생명체는 같은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두 벌씩 갖고 있는 세포인 이배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양 유전자의 경우에는 두 벌 중 한 벌의 돌연변이만으로도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우성형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반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경우에는 유전자 두 벌 중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정상이면 여전히 세포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므로 열성형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이와 관련하여 망막모세포종 환자의 경우에 대부분 어린 나이에 종양이 발생하고, 어른이 되고 나서 발병한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어린 종양 환자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전자 한 벌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며 다른 한 벌도 불안정한 상태로 태어나 이른 시기에 추가로 돌연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어른 종양 환자가 적은 것은 같은 위치의 유전자 두 벌 모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p53 유전자와 p21 유전자는 세포 분열에 상반된 작용을 한다.
- ② Ras 단백질이 항상 활성화 상태이면 비정상적 세포 분열이 나타난다.
- ③ 망막모세포종은 종양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다.
- ④ G 단백질이 인산화되면 Ras 단백질이 활성화 상태가 된다.
- ⑤ 이배체 세포는 동일한 기능의 유전자를 두 벌씩 갖고 있다.

9.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Ras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가 있으며, ㉡에는 p53 유전자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가 있다.
- ② ㉠은 ㉣과 달리, 특정 유전자의 한 벌에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관련 단백질을 형성한다.
- ③ ㉡은 ㉠과 달리, 세포 분열 촉진 유전자의 발현을 통제하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은 ㉠과 달리,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에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 주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분열되는 상태에 있게 한다.
- ⑤ ㉠과 ㉡은 모두, 세포 분열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형성하는 유전자에 해당한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HPV)는 수천 개의 염기로 구성된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지며, 그중 E6 유전자와 E7 유전자는 종양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 E6 유전자는 p53 유전자와 결합하여 기능을 저해시키고, E7 유전자는 Rb 유전자가 형성한 단백질과 결합하여 그 활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HPV의 (㉦) 유전자로 인해 (㉧) 종양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
①	E6	세포 분열 유도 단백질이 항상 인산화되어
②	E6	조절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③	E7	E2F의 비활성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④	E7	전사 인자와 Rb 단백질의 결합이 유지되어
⑤	E7	세포 분열 촉진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해

11.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거치는 ② ㉤: 각추는
- ③ ㉣: 이루어져 ④ ㉥: 없는
- ⑤ ㉦: 드물기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토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재정이 결정되었다.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재정 수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토지 제도는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대 중국의 정전제(井田制)는 토지 제도의 이상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전제는 국가가 소유한 일정한 넓이의 토지를 ‘井’자 모양으로 동일하게 9등분하여 이를 8개의 민호(民戶)가 경작하는 제도였다. ‘井’자의 가운데 구역인 공전(公田)은 모든 민호가 공동으로 경작하며, 나머지 토지인 8개의 사전(私田)은 각 민호가 하나씩 할당받아 경작하였다. 사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수확물이 경작자의 소유로 돌아가지만, 공전에서 수확한 곡식은 모두 국가의 몫이 된다. 이처럼 사전과 공전은 토지의 소유가 아니라 수확한 곡식이 개인과 국가 중 어디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구별되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 정전제는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하여 정착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토지가 네모반듯한 것이 아니었고 공전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조선에서는 수확되는 생산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 단위인 1결의 면적을 정하는 ㉠전분 6등급을 시행하였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논밭을 6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비옥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토지는 1결의 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6등급 토지의 1결 면적은 1등급 토지보다 네 배 정도 넓었다. 이렇게 등급에 따라 면적은 달랐지만 1결당 적용되는 세금은 동일하였다.

또한 매년 풍흉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매해의 수확량에 기초하여 세금 부과를 달리하는 ㉡연분 9등급도 함께 실시되었다.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따져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 9개의 등급으로 나눈 후에, 상상년에는 1결의 수확량을 400말로 정하고 1결당 20말의 세금을 부과하되, 1개 등급씩 낮아질수록 2말씩 차감하여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치동적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16세기 이후에는 모든 농토에 동일하게 1결당 4말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나)

왜란과 호란을 겪은 후 조선은 토지가 황폐해지고 농작지도 줄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기를 돌파할 다양한 토지 제도 개혁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대 중국의 정전제는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한 모범이 되었다.

공전제는 국가의 모든 논밭을 국가 소유의 공전으로 ㉢만들어 토지의 개인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적 위치와 재공할 수 있는 노동력 등에 따라 공전을 차등적으로 지급받은 후에 토지 생산량의 1/10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였다. 유형원은 공전제를 시행하기 위한 촌락 공동체의 기본 단위를 여러경이라 칭하고, 각 여러경에서는 일정 크기의 토지를 20민호가 경작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러한 토지 제도가 정착되면 모든 백성들이 생업을 보장받기 때문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하여 이

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유형원의 공전제 구상은 18세기 정약용의 토지 제도 개혁론에 영향을 주었다. 정약용은 유형원의 여러점을 참고하여 여전제를 구상했다. 여전제는 25민호를 1려로 삼고 각 려에는 경영과 관리를 맡는 여장을 ㉤두고 려 단위로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함께 경작한 후 노동 일수를 기준으로 생산물을 공동 분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전제와 여전제는 개혁인의 급진성으로 인해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구상 단계에서 이를 깨달은 정약용은 고대 중국의 정전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정약용이 제안한 정전제는 사전 8결마다 공전 1결을 두고 사전 경작자들이 1결의 공전을 공동 경작하여 세금으로 내는 제도였다. 이때 8결의 사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사전과 공전은 토지 소유에 따라 구분되었기 때문에 각각 사유지와 국유지에 해당하였다. 정전제의 시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공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였다. 정약용은 정전사라는 담당 관청을 두고 그 관청에서 국가 자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전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약용은 분업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이에게만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1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농업 이외에는 다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18세기 말에는 수공업과 상업이 일정 수준으로 발전했으므로, 정약용은 이들 업종의 종사자들이 토지를 ㉦받지 않는 대신에 농민들과 생산물 교환을 주장했다.

1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현실 개혁 방안과 관련된 개념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토지 제도 개혁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입장에서 당대에 제안된 토지 제도 개혁 방안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모두 당대의 현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상한 토지 제도 개혁안들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모두 국가 재정과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한 요인을 특정 학자의 현실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13. (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전제에서는 노동 기여도가 생산물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② 조선 초기에 정전제는 조선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다.
- ③ 공전제의 세율은 연분 9등법에 따라 상상년에 적용되는 세율 보다 높다.
- ④ 공전제와 여전제는 모두 일정한 수의 민호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토지 제도이다.
- ⑤ 여러정은 공전제 시행의 기본 단위로써 20민호가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공동 경작한다.

16. <보기>는 조선 학자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공전과 사전은 모두 정전제를 구성하는 요소로 필수적이며 대립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런 공사 관계가 무너지면서 정전제 역시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을: 각 농민의 노동력을 헤아려 그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만큼 토지를 분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을 철폐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 토지를 분급받은 백성들에게는 이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인 수전권이 인정됩니다. 그들은 사는 동안 수전권으로 농사를 짓고, 사망할 때에 나라에 그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① 갑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농토를 공전으로 만들려는 유형원의 개혁안은 토지의 공사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정전제의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갑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정전제는 수확한 곡식이 개인과 국가에 나뉘어 귀속되게 함으로써 사유지와 국유지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도록 했겠군.
- ③ 을의 견해에 따르면, 공전제하에서는 개인의 노동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가 분배되기 때문에 각 농민이 내는 세금은 분배받은 토지의 생산량에 따라 서로 다르겠군.
- ④ 을의 견해에 따르면, 유형원의 공전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약용의 정전제와 달리 전국의 모든 사전을 철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군.
- ⑤ 병의 견해에 따르면, 공전제하에서 토지를 분배받는 촌락 공동체의 농민들은 토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되겠군.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 적용할 경우, 1결당 징수되는 세금은 토지의 등급과 상관 없이 동일하다.
- ② ㉠만 적용할 경우, 비옥도가 높은 토지일수록 1결의 면적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 ③ ㉠과 ㉡을 함께 적용할 경우, 특정 토지의 비옥도는 풍년일 경우에 높게, 흉년일 경우에 낮게 평가된다.
- ④ ㉠과 ㉡을 함께 적용할 경우, 등급이 가장 낮은 토지에는 풍년이어도 1결당 20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
- ⑤ ㉠과 ㉡을 함께 적용할 경우, 등급이 가장 높은 토지는 흉년이 라도 1결당 가장 낮은 토지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15. (나)를 고려할 때, '정약용'이 '유형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지 제도만 바꾸는 것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어려우므로 수공업이나 상업과 관련된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 ② 토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전을 마련하기 위해 관청이 나서야 합니다.
- ③ 토지를 차등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개혁의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모든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토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 ④ 국가 소유로 만들어 모든 토지에 세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인 소유의 토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 ⑤ 국가 자산을 사용해 공전을 늘리는 것은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므로 공전 확대에 국가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7.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했다.
- ② ㉡: 나는 그녀와 오늘 합의를 보기로 약속했다.
- ③ ㉢: 그 회사는 세계 각지에 많은 지사를 두고 있다.
- ④ ㉣: 분위기가 격앙되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⑤ ㉤: 그는 멀리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한 손으로 받았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평행장이 이끄는 왜군은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지만, 명나라 제독 이여송의 군대가 참전하여 평양을 탈환하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이른다. 조선 장수 유성룡과 의병 김천일은 굶주린 백성들을 구출하며 전쟁이 길어지고 있음을 탄식한다.

각설, 창의(倡義) 김천일의 군중에 이시충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가 스스로 ㉠경성에 들어가 왜적을 탐지할새 양(兩) 왕자와 그 배행(陪行)* 등을 찾아보고 돌아와 이르되,

“적이 강화(講和)할 뜻이 있다.”

하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적장 평행장이 김천일의 군영에 글월을 보내어 강화하기를 청하거늘 김천일이 주시를 거느려 용산에 있더라. 김천일이 그 글로써 유성룡에게 보내니 유성룡이 하여금 비고 제독에게 보내어 여쭙니, 이여송이 즉시 유격장군으로 심유경을 경성에 보내어,

“왜적의 동정을 탐지하라.”

하고 뒤를 따라 대군을 거느려 송도에 머무르니라.

이때 심유경이 행하여 동파에 이르니 도원수 김명원이 심유경에게 이르되,

“적이 ㉡평양에서 속았던 일을 분노하여 하니 반드시 좋은 곳이 없을까 하노라.”

심유경이 소 알,

“적이 어찌 나를 해하리요.”

하고 드디어 경성에 이르러 적장 평행장을 보아 가로되,

“너희 만일 강화하고자 할진대 먼저 조선 왕자와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군을 ㉢부산으로 물린 후 비로소 회친을 하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조선팔도 용병이 벌떼처럼 달려들 뿐만 아니라 천자께서 분노하사 대병을 보내어 너희를 전멸하려 하시나니 일찍이 뜻을 정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 만일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늘과 신령이 한가지로 노하시면 그때 비록 돌아가고자 하나 미치지 못하리라.”

하니 평행장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 군사를 물려 본국으로 돌아가간 후 중국이 조선으로 더불어 벼슬을 일본으로 보내어 회친을 이르게 하라.”

심유경 알,

“실로 화친할 뜻이 있거든 조선 왕자와 신하들을 돌려보나라.”

평행장이 허락하거늘 심유경이 즉시 돌아오니라.

이때 청정이 경성에 돌아왔더니 평행장이 청하여 퇴군할 일을 의논하되 청정 알,

“이제 어찌 무단히 물리거리오. 더 나이가 이여송을 항복 받은 후 바야흐로 돌아가리라.”

하고 즉시 장수 엄홍과 이현을 불러 알,

“너희는 나이가 이여송을 불러 이르되 만일 퇴군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거지 아니하거든 즉시 그 머리를 베어 오면 후한 상을 내리리라.”

하거늘 양장(兩將)이 명을 주의 깊게 듣고 각각 날카로운 단도를 감추고 ㉣송도에 이르러 군영으로 들어가니라.

이때 이여송이 장중에서 머리를 빗더니 홀연 온항아리 돌이 장중으로 들어오거늘 이여송이 자객인 줄 알고 황망히 한 손으로 빗던 머리를 붙들고 한 손으로 보검을 들어 장중에서 마구 치니

병기 서로 부딪는 소리 장 밖에 들리는지라. 제장이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온항아리 셋이 장중에서 구르니 대개 검술을 잘하면 검광이 원품을 돌려 온항아리같이 되는지라. 제장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더니 이윽고 제장을 불러 이것을 치우라 하거늘 제장이 그제야 비로소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의 지신이 있거늘 제장이 놀라 알,

“장이 좁기로 들어와 돕지 못하옵더니 제독의 신위(身位)로 양적을 하례치 아니미이까.”

이여송이 웃어 알,

“자객이 본디 칼쓰기를 너른 곳에서 배운 고로 장중에서 임의로 쓰지 못하여 내게 배인 바 되나 만일 장 밖에서 싸웠다면 힘을 많이 허비할 뻔하였다.”

하더라.

이때 군영에서 양식이 다하여 굶주려 죽는 자가 많으니, 평행장이 청정으로 더불어 의논을 정하고 평조신 평조강으로 더불어 충청도로 내려가 군량을 수운하라 하는지라. 양장이 명을 받들고 일만 정병을 거느려 남대문으로 쫓아 청파(靑坡)로 향하거늘, 문득 대풍이 일어나며 검은 기운이 적진을 둘러싸고 무수한 신병(神兵)이 쫓아오는 곳에 한 장수가 당도하여 왜장과 충돌하며 낮은 무릎 대추빛 같고 붉은 봉황 길은 눈에 눈썹을 거스리고 손에 청룡도(靑龍刀)를 들고 적토마(赤兔馬)를 탔으니 위풍이 늠름한지라, 적병이 두려워하여 황망히 달아날 새 서로 깃뺏아 죽는 자 무수하더라. 그 장수 바로 남문으로 쫓아 깨쳐 들어와 동대문을 짓쳐 나아가거더니 홀연 간 데 없는지라. 평조신 등이 군사를 태반이나 죽이고 겨우 목숨을 보전하고 돌아와 평행장을 보고 그 일을 고하매 평행장이 대경하여 알,

“이는 반드시 삼국적 관운장이 현성함*이로다. 전일 당장 심유경이 이르되 우리 만일 돌아가지 않으면 친신이 한가지로 노하리라 하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도다. 이제 만일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입으리라.”

하고 즉시 각 군영에 명하여 군사를 거두어 ㉥도성을 떠나 어지러이 한강을 건너 삼남*을 향하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배행 : 윗사람을 모시고 따라감.

* 현성함 : 높고 귀한 사람이 죽은 후에 신령이 되어 나타남.

* 삼남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18.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 ②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보를 회화화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표현을 통해 특정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이 처한 상황에 걸맞은 숙담을 삽입하여 교훈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19. 밑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천일’은 ‘이시충’의 정탐 내용을 믿고 ‘평행장’에게 화친을 권고하는 글을 보낸다.
- ② ‘김명원’은 ‘적’과의 지난 전투 결과를 근거로 들어 ‘평행장’의 진의를 의심한다.
- ③ ‘평행장’은 ‘심유경’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인 뒤 ‘청정’을 만나 앞으로의 일을 의논한다.
- ④ ‘제장’은 ‘이여송’이 ‘자객’과 겨루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그들의 결투에 개입하지 못한다.
- ⑤ ‘평조신’ 등은 ‘평행장’에게 군량을 운반하지 못하고 목숨만 보전하여 돌아온 까닭을 밝힌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사실과 상이한 장면을 다수 삽입한 군담 소설이다. 특히 화친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이 조선에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는 모습은, 화친을 대가로 불리한 조건을 제안 받았던 실제 조선의 입장과 대조된다. 한편, 소설 속 협상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 상황들은 특정 인물의 비범한 능력이나 다수의 비현실적 체험과 같은 전기적 요소를 통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 ① 평행장의 요구를 접한 심유경이 조선 왕자와 신하들의 귀환을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제안받았던 조선의 실제 입장과 등장인물이 주장하는 바가 대조됨을 알 수 있군.
- ② 평행장의 의논을 들은 청정이 이여송의 항복을 받기 위해 장수를 보내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화친 조건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자객을 제압한 이여송이 장 밖에서의 상황을 가정하여 답하는 모습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물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승리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갑자기 등장해 적병을 두려움에 빠트린 장수가 홀연 사라지는 모습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전기적 요소가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평조신의 보고를 들은 평행장이 퇴군을 결정하는 모습을 통해, 다수에게 발생한 비현실적 체험을 계기로 상황이 종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조선군이 현재 머무르는 곳으로, 왜군이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탈환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② ㉡는 조선 왕자와 신하들이 억류되어 있는 곳으로, 조선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다.
- ③ ㉢는 군사·간 층들이 발생했던 곳으로, 이후 벌어질 새로운 전투를 암시하는 공간이다.
- ④ ㉣는 왜군에게만 출입이 허락되던 곳으로, 심유경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⑤ ㉤는 왜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그들이 심유경의 말을 떠올리며 떠나게 되는 공간이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 돌길에 묻혔어라

㉡ 시비(柴扉)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누구 있으리

밤중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하노라 <제1수>

초목(草木)이 다 매몰(埋沒)한 때 송죽(松竹)만 푸르렀다

풍상(風霜)이 쉬어 칠 때 네 무슨 일로 혼자 푸른가

두어라 저들의 성(性)이아니 물이 무엇하리 <제3수>

㉢ 냇가에 헤오라기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無心)한 저 물고기를 어찌하려고 하는가

아마도 ㉣ 같은 물에 있거니 잊어버린들 어찌하리 <제7수>

서까래 길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었거나 틀어졌거나

㉤ 수간오옥(數間茅屋)이 작다고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나월(滿山蘿月)*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제8수>

- 신흘, 「방옹시여(放翁詩餘)」-

* 만산나월: 산에 가득 자란 덩굴풀에 비친 달.

(나)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작풍(朔風)이 거둬 불어
폐구를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公)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萬樹千林)을 꾸며곰 내었도다

앞 여울 덮어 얼어 외나무다리 비졌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잔단 말고

산옹(山翁)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새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萬古)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聖賢)도 많거니와 호걸(豪傑)도 많고 많아라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과 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리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허유(許由)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평계 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길아야 불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어느 만큼 익었나니

잠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나

거문고 줄에 없어 풍입송(風入松) 타자꾸나

손인동 주인인동 다 잊어버렸어라

- 정철, 「정산별곡(星山別曲)」-

(다)

자연은 기이한 빗길을 소유하고, 인간은 그것을 빌려다 쓴다. 자연의 빗길을 빌려 쓰는 사람 가운데 숨씨가 가장 모자란 자가 바로 ㉠ 비단 짜는 여인이다. 여인은 누에고치 실에서 기늘고 미끈한 것을 고른다. 낮이면 햇볕에 말리고 밤이면 달빛에 말린 뒤, 팔 힘을 뽐내며 복을 던져 날마다 몇 치씩 비단을 짠다. 그다음에는 꼭두서니와 쪽 물감으로 물들이는데, 그 화려한 빗길이 사람의 눈길을 빼앗는다. 중국의 촉 땅 여인데 숨씨가 그중 제일 뛰어나다. 그러나 그 비단을 가져다 옷을 만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무튀튀하게 색깔이 바랜다. 만들기는 너무도 힘이 들건만 망가지기는 쉽다. 그래서 실 짓는 여인은 괴롭기만 하다.

자연의 빗길을 빌려 쓰는 사람 가운데 약간 약은 피를 가진 자가 바로 ㉡ 시인이다. 봄바람을 불러다 정신을 만든 다음, 밝은 노을로 꾸미고 향수도 뿌리며, 비취새의 깃털과 칠랑거리는 옥구슬로 갖가지 장식을 한다. 그 뒤에는 굵디고운 뱃속에서 시상을 찾아내어 부드러운 팔뚝을 휘둘러 시를 쓰되,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매끈하고 멋지게 시를 짓는다. 육조 시대 시인들의 숨씨가 제일 좋아, 제법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명성이 시들지 않을 것만 같다. 그러나 제 심장을 토해서 시를 쓰고 나면, 영력없이 인간들은 시기하고 귀신들은 화를 낸다. 시를 잘 쓰기는 너무도 어렵건만 공공한 처지가 되기는 쉽다. 그래서 시인은 괴롭기만 하다.

그러나 그 누가 ㉢ 기원(綺園)의 주인보다 낫겠는가? 기원의 주인은 몇 이랑의 땅을 개간하여 이름난 화재를 죽 심었다. 붉은색, 녹색, 자줏빛, 비취빛, 옥색, 담황색, 단향목색, 흰색, 알은 멧, 깊은 멧, 성글게 심은 꽃, 빼빼하게 심은 꽃, 새로운 꽃, 묵은 꽃, 일찍 피는 꽃, 늦게 피는 꽃, 저물 때 피는 꽃, 새벽에 피는 꽃, 갓 날 피는 꽃, 비 올 때 피는 꽃 등등. 온갖 꽃이 천관하게 어우러져 빗길을 뽐낸다. 이렇게 진짜 정취로 진짜 빗길을 대하므로 그 무엇과 우열을 다투겠는가? 그렇지만 주인은 화재의 위치를 안배하고, 심고 접붙이고 물을 뿌리고 물길을 터주며, 흙을 북돋고 가지를 쳐내는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원 주인조차도, 명칭하고 완고한 ㉣ 들 늙은이가 한 해 내내 묵 뱃뺏하게 배가 높이고 누웠다가, 기원 동산에 꽃이 한창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흔연히 찾아가서는 온종일 마음 편하게 앉아 꽃구경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으리라

- 이기환, 「기원기(綺園記)」-

22. (가)~(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비참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 ⑤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있다.

* 경요굴: 아름다운 구슬로 만들었다는 달나라의 동굴.

23.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방용시여,」는 ‘방출된 늑은이가 남긴 시’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으로, 화자는 정계에서 밀려난 후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소박한 은거 생활에 자족감을 나타낸다. 아울러 정치적 권력을 얻고자 상대를 음해하는 비정한 세태와 당쟁으로 인해 어지러운 나라의 모습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 ① ‘돌길’을 세상과의 통로라고 볼 때, ㉠은 정계에서 물러난 후 고립된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시비’를 외부 세계와 은거지의 경계라고 볼 때, ㉡은 화자 스스로 외부 세계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해오라기’를 당쟁을 일삼는 사람으로 볼 때, ㉢은 권력을 좇던 자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음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같은 물에 있거니’를 임금을 함께 모시는 상황으로 볼 때, ㉣은 당쟁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수간모옥’을 소박한 삶의 공간으로 볼 때, ㉤은 현재 생활에 대한 자족감을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문학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 번째 양상은 자연을 관념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관념은 유교적 가치에 관한 것이며, 자연은 유기적 진퇴(進退)의 한 축인 퇴(退)의 공간, 즉,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자기를 수양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양상은 자연을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자연은 미적 관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① (가)의 ‘초목이 다 메물하거나 ‘풍상이 섞어 칠 때’에 ‘혼자 푸른’ 모습을 한 ‘송죽’은, 유교와 관련한 긍정적 가치를 지닌 자연물로 제시된 것이겠군.
 ② (가)의 ‘서까래 길거나 짙으나 기둥이 기울었거나 틀어졌거나’라는 표현은,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표출된 것이겠군.
 ③ (나)의 ‘서책을 쌓아 두고서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며 지내는 ‘산중’에서의 생활은, 자연 공간에서 책을 통해 자기를 수양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겠군.
 ④ (나)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며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린다는 언급은, 세속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펼쳐내려는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겠군.
 ⑤ (다)의 ‘기원 동산’에 ‘혼연히 찾아가서는 온종일 마음 편하게 앉아 꽃구경하는’ 행위는, 자연을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겠군.

24.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특정 계절을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주변의 경관을 예찬하고 있다.
 ② [A]는 [B]와 달리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여 심리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③ [B]는 [A]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B]는 [A]와 달리 의문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⑤ [B]는 [A]와 달리 열거의 방식을 이용하여 대상과 관련된 다채로운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26. ㉠~㉣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숨씨가 가장 모자란 이유는 자연으로부터 충분히 아름다운 빛깔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는 ㉢와 달리 자연으로부터 빛깔을 얻기 위해 육체의 수고로움을 필요로 한다.
 ③ ㉡, ㉢, ㉣보다 ㉣가 나은 이유는 자연의 빛깔을 얻고자 애쓰지 않고서도 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와 ㉣가 자연의 빛깔을 빌리기 위해 노력한 일은 ㉠에 의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⑤ ㉠은 ㉢, ㉣와 달리 모조품이 아닌 자연의 진짜 빛깔을 대할 수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심작은돌 노파가 입원한 제3병동은 가난과 전염병으로 ‘3등 인간’ 취급받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다. 한편 심 노파의 딸 강남옥은 어머니를 병간호하다가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오롱대 심작은돌 노파의 딸에게도, 어머니가 중증 폐결핵에 장질부사*까지 걸렸으니, 길은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당부해두었던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어코 어머니 결에만 꼭 붙어서 잤다. 솟제 자기는 3등 인간이 아니라고 고집이라도 하듯이. 그런 것까지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

계단을 내려오면서, 김 의사는 그러한 그녀를 나무라던 일을 생각했다.

[A] “어머님 결에 가지 말했는데, 왜 지꾸만 그러지요?”

“.....”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답이 없었다.

“그렇게 말거를 못 알아들어요?”

역시 마찬가지다. 마치 커머거리나 이방인 같다.

“무식이란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의사 김중우 씨는 거의 신경질적으로 뇌까렸다.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들고 이쪽을 쳐다보는 그녀의 차디찬 눈 초리에는 심상치 않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B] ‘그런 것쯤은 알아요! 그러나 우짜란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었다. 어머니와 같이 죽어도 좋다는 거라고

더구나 의사 김중우 씨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미음을 떠먹일 때 자기도 그 숟가락을 먹어 대는 태연한 광경이었다. 물론 그런 건 더욱 엄하게 주의를 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명령까지도 아예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명령한, 바로 그 의사가 보는 데서 예사로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계집애!’

떼져라 싶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이후, 의사 김중우 씨는 엉뚱한 회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병을 겁내지 않는 애** 죽음까지도!

그저 암전하고 착실한 의사의 아들로서 이른바 일류의 중학, 고등 [C] 학교를 마치고, 대학까지 일류관 비를 나온 레지던트 코스의 젊은 의사 김중우 씨의 단순한 생각으로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람의 명과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눈길까지 해 넣고 심장 이식까지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현대 의학 이론으로써도 그러한 인간 행위만은 진단할 길이 없었다. 호도나 뭐니 하는 그런 너절한 것이 아니다! 훨씬 본질적인 것, 어쩔 과학 파워에 의해서, 혹은 현대인의 그 약사빠른 비굴성이랄까, 거짓 이기주의.....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말살되어가고 있는, 그런 무엇이 아닐까?

요컨대 병과 세균과, 그런 것에서 오는 불행들만을 두려워해 오던 젊은 의사 김중우 씨는 어떤 막연한 정신적인 회의 내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태까지 지녀 오던 자기, 또는 자기의 일에 대한 보람이라든가 궁지 파워가 여지없이 무너져 가는 듯했다. 말하자면 무식하다고만 여겼던 시골 계집애에게 불안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중략)

그러나 강남옥 처녀는 소위 ‘침대 안정’을 취할 처지가 못 되었다. 어머니를 굶겨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사는 [D] 그러한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미음이나 무른 죽을 먹여야 된다고 했지만(사실 환자들도 그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웬일인지 병원측에서는 꼬박꼬박 흰밥만 갖다 주었다. 그래서 대개는 간호하는 가족들이 그걸 먹고 환자들에겐 미음이 나 죽을 쑤어 주게 돼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부엌**도 꽤 널찍한 게 있는 것 같고.

강남옥 처녀는 악을 써서 일어났다. 석불알만한 냄비에 쌀을 조금 담아 가지고 터덕터덕 부엌으로 갔다. 절대 안정도 필요했겠지만 절대로 죽은 쑤어야 되니까.

돌밖에 없는 무연탄 화로는 벌써 민원이 아니라, 몇 개의 냄비가 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쌀을 씻으려니 찬물이 우선 몸에 딱 거슬리었다. 오작 주워지는 것 같았다. 강남옥 처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가 이러 도고. 나도 아프면서 그래 가 대나!”

[E] 열굴이 알금알금한 중늬은이가 강남옥 처녀로부터 냄비를 빼듯이 받는다. 같은 병실에서 폐암이 딸 구완을 하고 있는 시골 사람이다. 마침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방에 가 누웠거라. 내 것하고 같이 해가꾸마.”

사양하는 강남옥 처녀를 억지로 돌려 보낸다. 아직도 시골 사람들이게서는 볼 수 있는 **호의요**, 고집이었다.

㉠ 그 아주머니가 있는 동안은, 강남옥 처녀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다.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딸을 위하여 하루에도 몇십 차례 간호원실 문에 가 붙어 있던 아주머니였지만, 끼니때는 강남옥 처녀를 대신해서 곧잘 죽을 쑤어 주곤 하였다.

그러한 아주머니가 드디어 병원을 떠났다. 그것도 여러 번 버르던 뒤였다. 원래, 그야말로 죽더라도 한이나 없도록 싶어 테리고 온 딸이었던 만큼 오는 ㉡ 그날부터 산소호흡을 시켰으나 병보다 돈이 지탱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잠지로 있던 딸이 어머니가 짐을 챙기는 걸 보자 이내 울기 시작했다. 나가가기가 싫다는 것이었다. 산소관 걸 넣어 주니 우선 숨쉬기가 수월했을 게고, 또 병원을 나가면 곧 죽을 것을 미리 짐작했을 것이다. 죽기가 싫었으리라. 살고 싶었으리라.

㉢ 짐을 챙겨 두던 날 밤, 그녀는 내쳐 울었다. 어머니는 텅없이 울고만 있었다.

㉣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꾸렸던 짐을 도로 끌었다. 그러나 겨우 ㉤ 하루를 더 견디다 그들은 결국 퇴원을 하고 말았다. 더 견딜 돈이 없었던 것이다. 3등 인간이었으니까.

- 김정환, 「제3병동」-

* 장질부사: 장티푸스균을 병원체로 하는 법정 감염병.

27.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중우’는 자신의 당부를 어진 ‘강남옥’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 ② ‘강남옥’은 ‘김중우’를 직접 찾아가 병원 규칙에 따르지 않은 가담을 밝힌다.
- ③ ‘김중우’는 ‘강남옥’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의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④ ‘침대’는 ‘강남옥’이 어머니에게서 병이 전염될 위험에 개의치 않음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⑤ ‘부엌’은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들이 본인의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는 공간이다.

28.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나무라던 일을 생각했다’를 보면,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 인물의 표정에 주목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이 추측한 다른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③ [C]: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특정 인물이 다른 인물의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D]: ‘했지만’과 ‘웬일인지’ 사이를 보면, 팔호를 사용하여 작중 인물들의 상황에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E]: ‘맡는다’와 같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특정 인물이 관찰하고 있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2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주머니가 딸이 완쾌되리라는 소망을 품는, ㉣은 ㉠에서 품은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② ㉠은 아주머니가 병원에 머물렀던 기간을, ㉣은 아주머니가 병원을 떠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③ ㉠은 아주머니와 딸이 대립하는, ㉣은 ㉠에서 발생한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④ ㉣은 아주머니가 ㉠에서 시작한 딸의 치료를 제삼자의 개입으로 중단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⑤ ㉣은 아주머니의 결정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은 그 결정이 일시적으로 유보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3병동」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도지에서 주변부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인정(人情)을 지닌 인물을 통해 인간성 회복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 또한 지식인으로 표상되는 인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간병하는 다른 인물에게 충격을 받으며 각성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시속에 묻들지 않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지닌 가치를 암시한다.

① 강남옥이 ‘현대 의학 이론’으로 ‘진단’할 수 없는, ‘병을 겁내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합리성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찾기 힘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김중우가 ‘거짓 이기주의’에 의해 ‘본질적인 것’이 ‘말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실과의 단절을 염원하는 인물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③ 김중우가 ‘어떤 막연한 정신적 회의’에 사로잡히고 ‘여태까지 지’냈던 ‘궁지 파위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에서, 지식인으로 표상되는 인물이 각성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군.

④ 아주머니가 ‘대신해서 곧잘 죽을 쑤어 주’며 ‘시골 사람들에게 서는 볼 수 있는 호의’를 보여 주는 것에서, 비극적 현실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인정 어린 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아주머니와 딸이 ‘더 건넌 돈이 없’는 ‘3등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퇴원을 하고’ 마는 것에서, 가난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엿볼 수 있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가 좋은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 ㉡아니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 가는 두 불의 도화(桃花)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 가는 두 귀밑의 푸른 구름이, 쪼이는 가을별에 얼마나 바래서 백설(白雪)이 될까요.

㉣머리는 희어 가도 마음은 붉어 잡니다.

피는 식어 가도 눈물은 더워 잡니다.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회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놀아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한용운, 「거짓 이별」-

(나)

1

당신이 날 사랑해주시니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내 「가 이런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밤도 안 먹 [A]고 잠도 안 자고 당신 일만 생각했습니다」

노을빛에 타오르는 나무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저도 나의 사랑은 저물지 않고 나로 하여 ㉦언덕은 불 붙었습니다 바람에 불리는 풀잎 하나도 피로움이었습니다

나의 피로움을 밝고 오소서, 밤이 오면 내 사랑은 한갓 잠 [B]
자는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잠든 일새들을 가만히 흔들어 봅니다 처음 당신이 나의 [C]
마음을 흔들었던 날처럼
깨어난 일새들은 잠들고 싶어합니다 나도 일새들을 따라
잠들고 싶습니다

일새들의 잠 속에서 지친 당신의 날개를 가려주고 싶습니다 [D]
그러다가 눈을 뜨면 것을 치며 날아가는 당신의 모습인
보이겠지요

처음 당신이 나의 마음을 흔들었던 날처럼 일새들은 몹시 [E]
떨리겠지요

- 이성복, 「어두워질 때까지」-

31. ㉠~㉣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정적 진술을 사용하여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② ㉡: 부정 표현을 이중으로 제시하여 '한 해 두 해'라는 시간의
흐름이 길게 느껴진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③ ㉢: 대상을 의인화하여 '도화'가 '낙화'가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머리'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 부사어를 활용하여 '우리'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기대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가 '이런 사랑을 받으'며 '당신' 일만 생각한 것은,
'당신'의 사랑에 만족하며 감사해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② [B]에서 화자가 '나의 피로움을 밝고 오소서'라고 한 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본심을 들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③ [C]에서 화자가 '나의 마음'에게 '당신'이 했듯 '잠든 일새들'을
'흔들어' 본 것은,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D]에서 화자가 '당신의 날개를 가려주고 싶'다고 한 것은,
'당신'의 행동을 제약하고 싶은 태도를 드러낸다.
⑤ [E]에서 화자가 '것을 치'는 당신으로 인해 '일새들이' '떨리겠'
다고 한 것은, '당신'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낸다.

33.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긍정적인 앞날을 예견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당신'과 함께했던 특정 추억을 떠올
리는 공간이다.
③ ㉠는 화자가 사랑으로 인해 겪은 시련을, ㉢는 화자가 지닌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④ ㉠는 화자가 답답함에 벗어나고 싶어 하는, ㉢는 화자가 오래
도록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⑤ ㉠는 화자가 사랑을 통해 위안을 얻는, ㉢는 화자가 사랑이
끝나리라는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이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 이별을 겪은 화자는 사랑의 순간을 돌이키고자
하거나 혹은 잊어버리고자 한다. (가)의 화자는 이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이별을 가짜의 상황으로 인식함
으로써 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이별로 인해 겪었던 아픔을 감내하면서 지난날
의 회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이별을
상상의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이별이
자연의 섭리처럼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임
을 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 ① (가)의 '쫓이는 가을 별'은 이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풍경을 의미하는군.
② (나)의 '바람에 불리는 풀잎 하나도 피로움이었'다는 것은 작은
것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이별을 힘들어했던 화자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③ (가)의 '백설'은 재회를 꿈꾸다 늙어 가기만 하는 화자의 처지를,
(나)의 '노을빛에 타오르는 나무'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군.
④ (가)의 '희망의 바다'는 이별 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나)의 '잠자는 나무'는 이별 후 슬픔을 감내하는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하는군.
⑤ (가)의 '이른바 거짓 이별'은 화자가 상상의 차원에서 이별을
없던 일로 치환하고 있음을, (나)의 '날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화자가 이별을 현실적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섭리로 인식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THE PREMIUM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교실 뒤편을 가리키며) 여러분, 저기를 보시죠! (청중이 뒤를 돌아본 뒤) 여러분이 벗어놓은 저 수많은 ‘레인부츠’들 행렬이 보이시지요? 최근 유행인 레인부츠는 비싼 가격에도 많은 사람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인부츠가 유행하지 않았어도 신고 다녔을 것 같나요? (청중들이 고개를 좌우로 젓자) 네,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다시 말해 경제 주체가 사회 현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심리적 태도를 ‘밴드왜건 효과’라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시죠! 밴드왜건 효과는 서부 개척 시대의 미국에서 시작된 말로, ‘밴드왜건’은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를 일컫습니다. (청중의 질문을 듣고) 아!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악대차를 따라 어느 가족이 서부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함께 악대차를 따라가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수를 한 번 치고) 이제 솔로몬 애쉬의 사회심리학 실험을 통해 집단에서 나타나는 밴드왜건 효과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애쉬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누가 봐도 답이 뻔한 문제를 내고, 실험 대상의 대답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피실험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오답을 대답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고, 실험 과정에서 피실험자가 이들의 대답을 들을 수 있게 해두었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피실험자 중 몇 명이나 정답을 맞혔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저도 비슷하게 예상했었는데요, 메타심리학 학회지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76%의 피실험자들이 자신이 틀렸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 오답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군중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 주체를 보면 외부 정보에 쉽게 현혹될 사람이 없어 보여도, 집단 차원으로 확장되면 경제 주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체적 판단 능력을 잃게 할 수 있으니,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대답에 긍정을 표하고 있다.
- ② 발표 중간 중간에 질문을 던져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발표의 도입부에 특정 행동을 요구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⑤ 실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심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 전에 세운 계획이다. 발표 후에 ㉠~㉥의 실행 방식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 계획]

-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활용한다. ㉠
- 밴드왜건 효과의 개념을 설명한다. ㉡
-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 밴드왜건 효과의 예를 다양하게 든다. ㉣
- 발표 대상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한다. ㉥

- ① ㉠: 도입부에서 청중들과의 공통 경험을 발표 동기로 연결한 것이 효과적이었다.
- ② ㉡: 청중의 질문을 예상하여 밴드왜건 효과의 개념을 용어의 유래와 함께 설명했다.
- ③ ㉢: 밴드왜건 효과가 생기는 이유를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을 바탕으로 제시했다.
- ④ ㉣: 경제 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다른 분야에 나타나는 사례도 덧붙여 개념을 뒷받침했다.
- ⑤ ㉥: 정보 전달에 그쳤을 뿐, 밴드왜건 현상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언급하지 않아 계획에 어긋났다.

37.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다음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1: 유행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차별화를 위해 희소성이 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현상은 없는지 찾아봐야겠어.

학생 2: 정치 분야에도 ‘대세론’이라고 일이 진행되는 형세를 따라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경제 활동이든 공동체의 미래든 대세에 치우쳐 선택하는 것은 위험하니,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 ①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자신의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들었다.
- ②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여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며 들었다.
- ③ ‘학생 1’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다룬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며 들었다.
- ④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밴드왜건 효과의 순간능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⑤ ‘학생 2’는 밴드왜건 효과가 적용되는 분야를 확장하면서 평소 자신의 습관을 성찰하며 들었다.

[38~42] (가)는 학생이 심리학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이고, (나)는 인터뷰 이후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장한 말투로) 무척 떨리네요.

교수 : ㉠ 반갑습니다. 콜 포비아(Call Phobia)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학생 : 콜 포비아는 '전화'를 뜻하는 '콜(Call)'과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전화 통화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 : 콜 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상황을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말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통화를 기피하고 대신 메신저 앱이나 문자로 [A]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지요. 또한 이들은 통화 중에 발생 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학생 :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는 통계를 접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화와 관련된 나쁜 기억이 축적되었기 때문일까요?

교수 :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그보다 주된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짜장면을 시키더라도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끼리도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메신저는 통화에 비해 비교적 생각할 시간이 많은데,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통화를 어색해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학생 : (정리한 자료를 뒤적이며) 아! 얼마 전 콜 포비아의 급증을 현상학적으로 설명한 논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교수 : ㉡ 설마 '콜 포비아'의 급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읽어봤나요? 고등학생이 읽기 어려웠을 텐데 대단하네요.

학생 : ㉢ 감사합니다.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아니라 부끄럽네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수 ◇◇씨가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콜 포비아로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많나요? 교수 : 국내의 학계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콜 포비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씨 [C]와 같은 사례는 보기 드물지요. 심중팔구는 가벼운 증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곤 합니다.

학생 : ㉣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 친구들을 보더라도 콜 포비아 증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교수 :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콜 포비아 증상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학생 : ㉤ 사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교수 : 네, 맞아요. 콜 포비아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요, 지속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과 불만이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콜 포비아 극복을 돕는 전화 기술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했어요.

학생 : 컨설팅 업체라니 놀랍네요.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서 콜 포비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전에 전화 통화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교수 : 맞아요. '나도 콜 포비아? 이렇게 극복하지!'라는 영상을

봤군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나 보네요.

학생 :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열심히 준비한 모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 : 미리 전화 통화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이때 혼자서 연습해 보고도 호전되지 않으면 가족, 친한 친구 등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포감이 심해서 신체 증상으로까지 나타났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학생 :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사회 선생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인터뷰하는 수행 평가를 내 주셨다. 그래서 좋아하던 가수가 콜 포비아(Call Phobia)로 병원에 방문하였다는 이야기를 접한 후로 이에 대해 호기심이 있던 나는, 심리학 교수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수님을 찾아뵙기 전에 콜 포비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탐색해 보기로 했다. 우선 콜 포비아의 어원과 개념이 궁금하여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 스크랩했다. 그리고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콜 포비아 증상과 극복 방법을 소개한 '나도 콜 포비아? 이렇게 극복하지!'라는 강연 영상을 시청했다. 다음 날에는 콜 포비아의 연관 증가세와 관련된 국내의 학계의 통계가 궁금해 도서관에 가서 관련 보고서를 찾아 읽어 보았다. 집에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던 중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다음 날에 학회에 메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콜 포비아'의 급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학회지 논문을 받을 수 있었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때에는 긴장을 많이 했다. 그래서인지 준비했던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아 아쉽게도 인터뷰를 일찍 마쳐야 했다. 친구들에게 인터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하나같이 예상 질문지를 미리 만들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는 예상 질문지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계기가 되었다.

38.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상대방이 기질 부담감을 완화해 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 ㉡: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정보 파악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 ㉢ ㉢: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 겸양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 자신의 주변 상황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설명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39. [A]~[E]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서 ‘교수’는 ‘학생’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며 ‘학생’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
- ② [A]와 [E]에서 ‘교수’는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학생’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③ [B]와 [C]에서 ‘교수’는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각 상황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C]와 [D]에서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학생’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⑤ [D]와 [E]에서 ‘교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40.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가)에 나타난 ‘학생’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터넷에서 스크랩한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콜 포비아의 어원과 개념을 물었다.
- ②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최근 콜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발병 양상이 다양함을 언급하였다.
- ③ 국내의 학계에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콜 포비아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거의 없음을 언급하였다.
- ④ 학회지 논문을 근거로 콜 포비아의 급증을 현상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다.
- ⑤ 유튜브 강연 영상의 내용을 근거로 콜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41.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콜 포비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심리학 전문가를 찾아가게 된 계기를 설명해야겠군. ㉠
- 콜 포비아와 관련한 자료를 탐색한 과정을 담화 표지를 사용해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해야겠군. ㉡
- 콜 포비아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한 각각의 매체를 밝혀야겠군. ㉢
- 인터뷰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원인을 생각해 보며 이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평가를 함께 언급해야겠군. ㉣
- 인터뷰를 통해 콜 포비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겠군. ㉤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다. ‘학생’이 초고를 고쳐 쓰며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교수님과 인터뷰를 할 때에는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미리 준비했던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아 아쉽게도 인터뷰를 일찍 마쳐야 했다.
- ㉡ 친구들에게 인터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하나같이 예상 질문지를 미리 만들지 않은 것에서 지적됐다. ㉢ 하지만 이번 인터뷰는 예상 질문지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계기가 되었다. ㉣ 앞으로도 인터뷰를 할 때에는 사전 자료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

- ①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을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어.
- ②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된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③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에서 ‘것에서 지적됐다.’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접속 부사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에서 ‘하지만’을 적절한 단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어.
- ⑤ 문맥의 흐름상 통일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 △△시 지역 신문의 독자 기고란에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 학생의 초고

현재 정부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버스 운행 회사가 저상 버스를 일정 비율로 배치,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저상 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들은 여전히 대중교통 중에서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시는 관광 명소가 밀집되어 있어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고 가로수와 같은 장애물이 즐비하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인도 턱이 높아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를 내리기가 어렵다. 심지어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에서는 저상 버스의 리프트가 오작동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상 버스의 휠체어석은 승객석이 펼쳐져 있다가 교통 약자가 탑승하면 승객석을 접은 후 휠체어를 안전장치로 고정하게 되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차 시간의 지연으로 이어지는데, 일부 승객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제촉하다가 버스 승무원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 교통 약자의 저장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교통 환경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버스 정류장 주변의 가로수를 재정비하거나 인도 턱의 높이를 낮추는 등 시설 보수가 시급하다. 동시에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버스 운행 회사들은 저장 버스에 구비된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리포트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저장 버스를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버스 운행 회사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저장 버스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43.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다음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증진법에서 저장 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② 교통 약자들이 저장 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강조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나열해야겠어.
- ③ 문제 해결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운행 회사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체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겠어.
- ④ 저장 버스의 운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강조해야겠어.
- ⑤ 저장 버스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협조가 필요함을 언급해야겠어.

44. <보기>는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과 이에 따라 고쳐 쓴 글이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의 조언]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해 보렴.

[고쳐 쓴 글]

저장 버스는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 아닌, 교통 약자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저장 버스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① 중심 화제와 관련성이 낮은 내용은 삭제하고, 저장 버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들의 노력을 구체화
- ② 중심 화제와 관련성이 낮은 내용은 삭제하고, 저장 버스가 교통 약자들에게 지닌 의의를 추가
- ③ 중심 화제와 관련성이 낮은 내용은 삭제하고, 저장 버스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 ④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은 삭제하고, 저장 버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들의 노력을 구체화
- ⑤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은 삭제하고, 저장 버스가 교통 약자들에게 지닌 의의를 추가

45.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ㄱ. 전문가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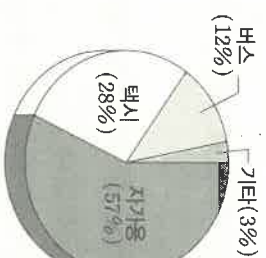
“저장 버스에 설치된 리프트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데에는 약 20초 넘게 걸립니다. 심지어 운전하던 버스 승무원이 직접 리프트를 조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수동 리프트를 설치하고 승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리프트 조작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ㄴ. 신문 기사

승객 좌석 수를 최소화하고 휠체어 좌석 수를 늘린 저장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시의 최근 교통 약자의 저장 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의 교통 정책 담당자는 “저장 버스 내에 불편한 점을 건의하는 청취함을 운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준에 운행하던 저장 버스의 실내 구조를 바꾸고 저장 버스 비율을 늘린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ㄷ. △△지역 거주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ㄷ-1) 가장 자주 이용하는 (ㄷ-2) 저장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배차 간격이 너무 넓음	45.6%
버스 정류장 주위 장애물	62.3%
버스 내 휠체어, 유모차 등의 거치 공간 부족	74.8%
정차 시간 지체에 대한 승객들의 부정적 반응	35.5%

- ① ㄱ을 활용하여, 교통 약자들의 저장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장 버스의 리프트 조작법에 대한 안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교통 약자들의 저장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 약자의 입장에서 저장 버스의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교통 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교통수단 중 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 ④ ㄱ과 (ㄷ-2)를 활용하여, 교통 약자들이 저장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원인으로, 저장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증가로 인한 버스 정차 시간의 지체를 추가한다.
- ⑤ ㄴ과 (ㄷ-2)를 활용하여, 교통 약자들이 저장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원인으로, 운행하는 저장 버스의 수가 적고 버스를 타더라도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THE PREMIUM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국어에서 한 음절에는 하나의 모음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음의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한 개의 자음이 올 수 있다. 즉 국어에서는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의 음절 유형이 있다. 가령 ‘값’은 ‘자음+모음+자음’의 유형에, ‘값’은 ‘모음+자음’의 유형에 속한다. 이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표기 형태를 통해 단어의 음절 수와 음절 경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그런데 국어의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및 음절 유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령 ‘집+이’는 [지비]로 발음되지만 원형을 밝혀 ‘집이’로 표기하므로 표기 형태가 음절 및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표기 형태와 음절의 일치 여부는 음운 변동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쓰+어’는 ‘-’가 탈락해 [씨]로 발음되는데, 모음 탈락은 규칙적인 현상이므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여 표기 형태가 음절과 일치하게 된다. 이와 달리 ‘안--+고’는 뒤소리되기가 나타나 [안꼬]로 발음되는데, 이는 규칙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 표기 형태가 음절과 달라지게 된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 비해 표기 형태와 음절이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표적으로 체언이나 용언 어간의 끝소리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옮겨 적었던 이어적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소리만 올 수 있어 종성을 8개 중 하나로 표기한 것 역시 표기 형태와 음절을 일치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가령 종성 ‘ㄱ’은 ‘ㄱ’으로, ‘ㅌ’은 ‘ㄷ’으로, ‘표’은 ‘ㅂ’으로, ‘ㅈ, ㅊ’은 ‘ㅈ’으로 발음에 따라 표기되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악회’는 축악이 일어나 [으마회]로 발음되며, 첫 번째 음절의 유형이 ‘옷장’의 첫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한다.
- ② ‘젊은이’는 탈락이 일어나 [절뜨니]로 발음되며, 첫 번째 음절의 유형이 ‘옷안’의 두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한다.
- ③ ‘바깥쪽’은 교체가 일어나 [바깥쪽]으로 발음되며, 두 번째 음절의 유형이 ‘답장’의 두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한다.
- ④ ‘숨이팔’은 첨가가 일어나 [숨니팔]로 발음되며, 두 번째 음절의 유형이 ‘옷이’의 두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여단이’는 교체기 일어나 [여다지]로 발음되며, 세 번째 음절의 유형이 ‘답이’의 두 번째 음절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36. 다음은 중세 국어의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윗글의 ㉠, ㉡에 따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比丘란 노피 안치고 [비구는 높이 얹히고]
- 보미 밋스매 잇고 [봄이 마음에 있고]
- 성실헝기돌 힘때 헝고 [성실하기를 힘써 하고]
- 蘭草와 뿌의 달음은 엇데오 [난초와 쑥의 다름은 어찌서인가]
- 누네 도흔 빗 보고져 [눈에 좋은 빗 보고자]

- ① ‘노피’는 어근의 형태를 밝혀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 ② ‘보미’는 체언과 조사를 분리해서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 ③ ‘힘때’는 어간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 ④ ‘뿌의’는 체언의 원형을 밝혀서 표기하였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 ⑤ ‘빗’은 단어의 종성을 실제 발음과 다르게 표기하였으므로 ㉡에 따른 것이다.

37. ㉢~㉤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보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형태소	→ 예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 예
			㉤

- 아무리 화가 나도 세 ㉢ 번까지는 참는 것이 좋다.
- 나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 치솟는 광경을 보았다.
- 우리는 혼란을 마치고 ㉤ 돌아온 형을 환영해 주었다.
- 그녀는 그와의 ㉣ 말싸움에서 오갔던 말들을 떠올렸다.

- ① ㉢과 ㉣은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2개씩이다.
- ② ㉢과 ㉣은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1개씩이다.
- ③ ㉢과 ㉣은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1개씩이다.
- ④ ㉢과 ㉣은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1개씩이다.
- ⑤ ㉢과 ㉣은 ㉢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각각 2개씩이다.

2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피동 표현은 주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결합한 피동사를 통해 나타낸다. 그런데 ㉡피동사로 파생될 수 없는 능동사도 있다. 가령 ‘지키다’와 같이 어간이 ‘1’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나 ‘만들다’와 같이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응하는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피동 접미사가 아닌 ‘-이지-/~이지-’를 결합하여 피동으로 표현하거나, 아예 피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 ① ㉠: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어 깜짝 놀랐다.
- ② ㉠: 나는 눈덩이를 굴려 큰 눈사람을 만들었다.
- ③ ㉡: 그곳에서 나는 신라 천 년의 숨결을 느꼈다.
- ④ ㉡: 동생은 학교에서 형을 만나 집으로 왔다.
- ⑤ ㉡: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다.

39. 다음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은 반 친구 민희, 수미, 은지의 대화 장면)
민희: 곧 있으면 여름 방학인데 ㉠너희는 뭐 할 예정이야?
수미: 아파 난 할머니 데에 갈 것 같아. 할머니께서는 ㉡우리 어머니와 내가 방학마다 오는 것이 ㉢당신의 다행이라고 하셨거든. ㉣너희는 뭐 할 거야?
은지: 나는 동생이랑 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어. ㉤우리는 매년 여름마다 참여하고 있거든.
민희: 우와! 그럼 이번에는 ㉥우리 둘도 데려가면 어때? 수미야, 너도 괜찮지?
수미: 응, 나도 시간을 맞추면 될 것 같아. ㉦우리 셋이 다 같이 의미 있는 여름 방학을 보내겠네!

-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모두 동일하군.
- ② ㉠이 가리키는 대상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
- ③ ㉢은 앞에서 말한 ‘어머니’를 붙여서 다시 가리키는 말이군.
- ④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되는군.
- ⑤ ㉦이 가리키는 대상은 화자와 ㉢을 더한 것이군.

[40~43] (가)는 보도 자료이고, (나)는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 도 자 료			
	20XX.08.29.(화)	보도 일시	20XX.08.30.(수)
배포 일시	이후 배포 예정		16:00 이후 보도 기능
담당 기관	질병관리청	담당자	연구원 최△△
췍췍기무시증의 집중 발생에 따라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췍췍기무시증 환자의 70% 이상이 가을철에 집중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이외 활동 시 감염에 주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input type="checkbox"/> 이외 활동 후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면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을 권고.			

- ☐ 췍췍기무시증은 췍췍기무시균에 감염된 탈진드기 유충에 사람이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법정 감염병이며,
 - 탈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1~3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 췍췍기무시증 매개 탈진드기 유충은 여름철에 산란된 일이 부화하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11월까지 활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 가을철에 췍췍기무시증 환자의 70% 이상이 발생한다. (붙임1 참고)
 - ㉠올해는 췍췍기무시증 환자가 이미 34주차(8월 4주차)에 전 주 대비 150%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 질병관리청장은 9월~11월에 췍췍기무시증이 집중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붙임2 참고)
 ○ 질병관리청장은 “㉡야외 활동 시 췍췍기무시증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고,
 - “조기에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붙임1	췍췍기무시증 발생 현황 (연도별, 월별)					
연도	월별 환자 발생 수 (단위: 명)					
	1월	...	8월	9월	10월	11월
202X	32	...	101	401	880	2,394
202Y	56	...	134	494	919	2,569
붙임2	췍췍기무시증 예방 수칙 :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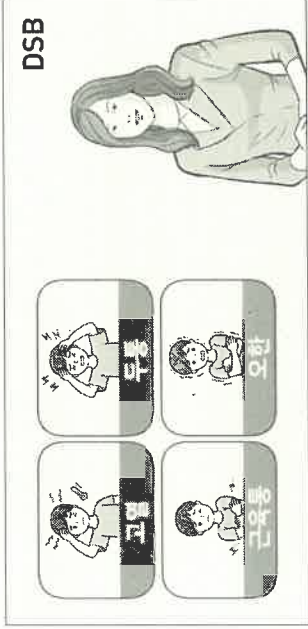
진행자: 8월 마지막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를 피하고자 산으로 향하는 등산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중에는 등산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도 있습니다. 김○○ 기자, 무엇이지?

기자: 바로 풀숲에서 서식하는 탈진드기 유충으로, 이는 췍췍기무시증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지금부터 탈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시작되고, 이후 날씨가 선선해지는 10월과 11월에는 활동량이 최고치에 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췍췍기무시증 환자의 70% 이상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한다고 하니, 앞으로 야외 활동 시 탈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이면 췍췍기무시증이라고 의심할 수 있나요?

기자: 네, 어제 발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췍췍기무시증의 매개체인 탈진드기 유충에 물리는 경우 1주에서 3주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히 진단받을 수 [C] 있도록 의료 기관을 즉시 찾아가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 역시 이와 관련하여 “조기에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쯔쯔가무시증의 주요 증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여 드립니다. 김○○ 기자,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㉔ 최선의 예방책은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에 안 물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등산 및 농작업과 같은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물론, 활동 중에도 진드기 기피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㉕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몸에 털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은 저희 뉴스 누리집에도 카드 뉴스의 형식으로 게재해 둘 예정이니, ㉖ 방송을 못 보신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용자가 주요 내용에서 보도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에 언급된 수치를 포함하여 요약 제시하고 있다.
- ② 수용자가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주 발생하는 시기와 상황을 상단의 제목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③ 수용자가 본문과 관련한 붙임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보의 글자 굵기를 달리하고 있다.
- ④ 수용자가 보도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매체의 제작 및 배포 시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⑤ 수용자가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수용자층에 맞게 정보를 분류하고 있다.

41. ㉑~㉕의 부사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부사 ‘이미’를 사용하여, 이번 연도에는 해당 질병의 집중 발생 시기가 다 지나갔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부사형 어미 ‘-게’를 사용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하여, 어떤 행위가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접속 부사 ‘또한’을 사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후에 더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㉕: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시청자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대상을 높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보도 자료가 뉴스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언론 매체가 사건을 뉴스화하는 기준인 ‘뉴스 가치’를 고려하면 특정 사건이 뉴스로 보도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언론 매체는 뉴스 가치를 토대로 보도 자료의 내용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최근에 생산되었거나 시의 적절한지, 지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수용자와 밀접한지,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판단하여 뉴스화할 내용을 선별한다.

- ① [A]: 등산객의 증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가)의 내용이 수용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뉴스화되었겠군.
- ② [B]: 방송 시점이 털진드기 유행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는 것으로 보아, (가)의 내용이 시의적절하다는 점에서 뉴스화되었겠군.
- ③ [B]: 전국적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한다고 지적인 것으로 보아, (가)의 내용이 다수의 수용자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뉴스화되었겠군.
- ④ [C]: 참고한 보도 자료가 어제 발표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가)의 내용이 최근에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뉴스화되었겠군.
- ⑤ [C]: 보도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아, (가)의 내용이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뉴스화되었겠군.

43. 다음은 (나)의 뉴스 누리집에 게재하기 위해 제작된 카드 뉴스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쯔쯔가무시증이란?

정의: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잠복기: 1주일~3주일

증상: 고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1) 등산 시: 등산로 벗어난 선질 다치지 않기

(2) 농작업 시: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착용하기

(3)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앉거나 옷 벗기 않기

그 외 모든: 농작업용 방석 사용하기, 농작업 발상 즉시 9도 기면 발명하기

[44~45] [화면 1]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고, [화면 2]와

[화면 3]은 [화면 1]의 신발을 거래하기 위해 판매자와 카페 회원
들이 채팅 기능을 통해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1]

www.cafe□□.com/tennisvillage

테니스 정보 공유 및 테니스용품 거래 전문
테니스마을

신발 거래 >

[판매] ★★ 브랜드 270mm 테니스화

작성일: 드리이브
20□□.08.02. 06:53:01 최초 작성 / 20□□.08.03. 08:21:10 수정

함께 우리나라의 ★★ 브랜드 마당에서는 전부 품질이라 해외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구했던 한정판 테니스화입니다.^^

제가 당분간 테니스를 칠 수 없게 되어 판매합니다. 깨끗하게
잘 보관해 두었으니, 잘 쓰실 분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네요.

착용 여부: 1회
색깔 및 사이즈: 흰색, 250mm
가격: 7만 원 (비데면 거래 시, 택배비 별도)

판매자: 드리이브(Gr*) | 안심번호 이용중 연락처 보기 >

불만인증 원로

거래 후기 3 0 0 >

구매 문의 채팅 SNS로 공유

위 제품과 함께 본 게시글

[판매] 스즈키 테니스화 30,000원

[판매] 알로! ★★테니스 가방 60,000원

[화면 2]

드리이브
보통 10분 이내 응답
판매중 ★★브랜드 270mm 테니스화
70,000원 가격 채팅 불가

20□□. 08. 03.

안녕하세요 테니스화 판매 글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새벽

드리이브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새벽

게시글 제목에는 사이즈가 270mm라고 적혀 있는데, 글 내용
에는 250mm라고 되어 있어서요. 어느 정보가 맞나요?

드리이브
제가 글 내용을 잘못 적어 두었네요. 270mm입니다!

새벽

네. 7만 원에 올리셨던데, 혹시 6만 원에 거래는 할까요?

새벽

드리이브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인데다가 워 번팔에 안 신어 본
제품이라 더 할인해 드리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럴 구매가 어떨겠네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화면 3]

드리이브
보통 10분 이내 응답
판매중 ★★브랜드 270mm 테니스화
70,000원 가격 채팅 불가

20□□. 08. 03.

안녕하세요. 신발 구매할 수 있나요?

드리이브
먼저 연락 주신 분이 게시서요. 거래 파기되면 연락드릴게요.

20□□. 08. 04.

드리이브
안녕하세요! 신발 구매 가능하신데, 구매할 생각 있으신가요?

별정

네. 그런데 화색 신발이라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 싶은데, 게시글에
는 오른쪽 신발의 측면 사진이 없어서요. 촬영해서 보내 주실 수
있나요? 이전엔 안 보고 썼더니, 발목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드리이브
네. 잠시만요!

별정

오 채팅에서 동영상도 첨부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깨끗하네요!

44. [화면 1]에 나타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시판의 이름을 통해 거래되는 항목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겠군.
- ② 해당 제품과 연관된 다른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보 생산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 ④ 게시글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정보 생산자의 게시글 수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게시글을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으니,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군.

45. [화면 2]와 [화면 3]의 대화에 나타난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벽’과 ‘별정’은 모두 경험을 근거로 하여, ‘드리이브’가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 ② ‘새벽’과 ‘별정’은 모두 매체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드리이브’가 영상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새벽’은 잘못된 기재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드리이브’가 설정한 판매 금액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별정’은 게시글의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
- ⑤ ‘드리이브’는 ‘새벽’과 진행 중인 대화를 근거로 하여, ‘별정’과의 소통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